

# 농촌교회를 통한 복지선교

- 영송교회의 사례 -

김 창 렬(목사, 전남 보성 영송교회)

## 1. 눈물고개를 넘어서

‘눈물고개!’ 겨울에 이 고개를 넘어서면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물이 흐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으론 이 고개를 넘나드는 모든 주민들은 가난과 고생의 한 맺힌 이곳 마을을 향하여 넘어설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달래는 고개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순천 여자만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 시골버스마저 다니지 않고 논길 밭길을 따라 그리고 산길을 한참 걸어야 저 멀리 산아래 읍내 시가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신기한 전등 불빛이 비추고 자동차들의 모습이 또 다른 세상이라도 되는 듯 분주하게 느껴진다. 밭농사 아니면 논농사 그 외의 특별한 농사는 찾아 볼 수 없다. 논이라고 해봐야 천수답이 대부분이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분명한 전통적 재래 농촌이다.

이것이 내가 이곳 영송교회에 25년 전에 부임했을 당시 이 지역의 현실이다. 실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교인들에게서도 희망과 기

대를 찾아 볼 수 없었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뿐이었다.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영송교회는 보성군과 고흥군 경계지역에 있다.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의 '영'자와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의 '송'자를 따서 '영송교회'라 불리워지고 있다. 부임 당시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하는 압담함과 악조건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다. 농촌의 젊은 이들과 교회청년들은 모두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 궁리들만 하고 있었다.

## 2. 지역사회개발과 복지를 꿈꾸며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떤 소망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였고 그것을 몸소 느끼는 가운데 신앙의 활력소를 찾는 것이 시급하였다. 예배 때마다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도록 하며 모든 일을 주안에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어떤 환경 하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확신을 갖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 특별히 새벽예배를 통하여 희망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노력했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데 망설임 없이 실천할 것을 부탁했다. 점차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고 얼굴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제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

이제는 구체적인 목회 비전을 교인들에게 제시하여 교회의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이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성장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란 큰 슬로건 아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적 교회 성장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젊은 제직들을 중심으로 좌담회를 통해 각종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면서 우선 교인 가정이 중심이 되어 특별 농업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였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선진지와 복지시설을 견학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희생과 착오가 있었지만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른 것들이 낙농사업과 딸기재배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특용작물 재배와 농축산 사업은 이 지역을 낙후된 농촌에서 완전히 선진 농촌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촌소득사업은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교회의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역과 함께 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로써의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다.

### 3.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인근에 세 곳의 초등학교는 있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이 없어 취학 전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논밭으로 산으로 부모님을 따라 다니며 놀거나 땅을 베개로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흙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시급하게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는데, 계절탁아소(농번기 때 아동을 돌 보 주는 일) 어린이집을 설립기로 했다.

아무런 예산도 없었고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밤이면 성도들이 모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벽돌을 찍어 교회로 운반하여 교육관 30평을 건축하여 처음으로 취학 전 아이들이 모여 놀고 배우는 장이 생겨났다.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있어도 어려움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내 달라고 가정 방문을 했지만 “어린이집요. 어린

이집이 뭐 다요. 부자 집에서나 보내는 유치원 같은 것 말이지라. 우리 목구멍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유치원에 보낸 다요” “돈 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이들만 보내주세요” 하며 설득을 했다. 공짜이니 보내보자는 의견들이 모여졌는지 60~70명의 아동들이 모였다.

교육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집안 형편으로 하루종일 굶는 아이들도 상당 수 되었다. 교사도 아이들도 지쳐있을 때 교우들의 도움으로 간식을 제공받았다. 계절에 따라 고구마, 옥수수 수가 주식이 되었고 빵을 만들어 간식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교육자료 하나도 없고 놀이시설 한 개도 없는 시골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무등을 태워주고 손수 만든 교구와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을 전파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 여자청년이 결혼선물로 받은 금반지, 금목걸이를 팔아 그네와 미끄럼틀을 준비해 주어 놀이시설의 기쁨이 되어주었다. 지금도 그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회 농어촌부에서 2년 정도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와 과자를 보내주어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6년쯤 지내면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샘물과 같은 분을 통해 역사하셨다. ‘한독아동복지선교회’(지금의 작은자복지선교회)의 고(故) 황화자 총무님을 통해 1983년부터 어린이집은 활기를 찾았고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실, 공부방, 그리고 식사제공 등이 가능해 졌다. 호남 지역의 구석 구석 움추리고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자들을 찾아 서울 ‘작은자복지선교회’와 연결하여 소년 소녀 가장에게 생활비 전달, 학비후원사업을 해왔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은자들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치시고 싸매주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안정되어 가며 웃는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가 지역을 위해 문을 열어 놓았을 때, 처음에는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였으며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바뀌어 갔다.

17년 동안 선교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져 갔고 자모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성장해 중·고등학생이 되어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대부분이 선교원을 다녔던 학생임을 보고 감사드렸다. 졸업생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가정형편상 중학교에 가지 못한 청년들을 가르쳐서 검정고시에 합격시켜 행복한 길을 걷게 해주었고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학비 때문에 눈이 툭툭 붓도록 울고 있는 모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작은자복지선교회 고 황화자 총무님께 편지를 보내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말없이 입학금을 마련해 주신 일도 있다. 그 뿐 아니라 심장관막으로 수술 받지 못한 어린이 또한 작은자선교회를 통해 수술 받고 건강히 자라 중학생이 되어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 앞에 늘 감



새 건물로 지어진 작은자의 집

사드릴 뿐이다.

#### 4. 노인복지

약 20여 년 간 아동복지 사업을 해오던 중 또 하나의 과제가 교회에 주어지게 되었다. 다름 아닌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였다. 1988년 올림픽 전후로 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시골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토록 하였는데 이 곳 세 학교에도 병설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그동안 아동복지를 위해 교회로써 해야 할 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지역아동교육을 위한 일은 학교에서 해결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병과 과로로 운명직전에 있던 할머니를 개가 활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울부짖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알게된 일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다. 그 인정 넘치고 울타리도 대문도 필요 없는 농촌에서 일어난 이 사실은 농촌 목회자에게 크나큰 충격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의무를 던져 준 일이다. 농촌지역의 독거(獨居)노인들의 문제는 도시지역과 또 다른 많은 애로를 안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작은 가사(家事) 일에서부터 민원업무, 그리고 병원 진료 관계까지 농촌에서는 모두 목회자의 일이다.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호와 서비스, 즉 교회의 사회봉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그동안 복지자금을 조금씩 적립해왔다. 키우던 찻소를 팔고, 영송교회 전계옥 장로님께서 이백만 원을 선뜻 주셔서 천만 원으로 3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시작하려고 했다. 유자차 판매와 굴비 판매 등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을 때, 1994년 작은자복지선교회가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와 병합되면서 전국의 여전도회원과 협력하여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봉사로 건축에 참여하신 집사님들



이 계셨고 벽들을 기증해 주신 분도 연결이 되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작은자복지선교회의 고 황화자 총무님의 기도와 눈물어린 협조로 지금부터 6년 전 부지를 매입하고 아담한 작은 자의 집의 개원을 보게되었다. 그리고 2년 전 전국 각 지역 여전도회의 헌금과 이사회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새 건물의 준공 및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어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아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50평의 건물과 3000여 평의 대지와 토지 위에 산책로, 꽃동산, 과수원, 잔디밭 그리고 갖가지 채소를 일구며 밝은 동산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여장(통합)여전도회 작은자복지재단의 이사회와 호남지역 여전도회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시설운영을 위한 기둥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항상 잊지 않고 후원해준 단체와 개인의 협력이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고 있다.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교활동과 신앙모임을 최우선으로 해오고 있으며 과거 전통적 노인시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로써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실시

해 오고있다.

이 일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의 도움, 그리고 격려는 이루다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특별히 복지목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헌신해온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놀라운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이었다. 힘겹고 눈물겨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심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 모이신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한 분 한 분 변화된 모습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되는 귀중한 사명임을 깨달았다.

농촌목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가장 가깝게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농촌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농촌을 버리지 않으신다. 농촌교회의 미래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른다.

---

김창렬 목사의 주소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534번지이고 전화는 061-857-2656 이다.